

##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

1. **에페소 서간**은 신약성경에서 열 번째, 서간 중에서는 다섯 번째로 나오는 성경
2. **에페소서의 저자**는 바오로의 친 서간들에 비해 보다 발전된 신학적 내용(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등)을 다루고 있어 바오로 사도보다 후대의 제자가 썼다고 함.
3. **저술시기**는 약 80-100 년 사이에 에페소 주변에서 썼다고 추정함.
4. **수신교회**는 에페소라고 하기보다는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그리스도교인들을 대상으로 함께 읽힐 의도로 쓴 “회람 서간”으로 보는 견해가 많음.
5. **에페소서의 저술 배경**: 바오로 사도는 제 2 차 전도여행 중에도 이곳을 방문하였으며, 이때 교회를 세웠다고 전한다. 제 3 차 전도여행 동안에는 무려 3 년간이나 머물면서 이곳을 바오로의 선교활동의 중심지로 삼았다.

### 6. 에페소서의 구조

- 1, 1-2 : 인사와 축복
- 1, 3-3, 21 : 하느님의 구원 계획
- 4, 1-6, 20 : 신자들의 삶의 원칙
- 6, 21-24 : 맺음말(소식과 축원)

### 7. 에페소서의 본문 내용

#### ❖ 전반부 : 하느님의 구원 계획(1장-3장)

- 에페소서 1 장 3 절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이 첫문장은 그 다음 14 절까지 찬양문의 도입부문이다. => 하느님을 찬양한다함은 하느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신앙고백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하느님의 축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 성서주석가들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표현은 바오로 문헌에 160 회 이상 나오는데, 그중 약 35 회는 에페소서에 발견되고 특히 이 서두찬양에 집중적으로 10 회나 사용되고 있다.
- 신자들을 위한 기도(1, 15-23) => 이 기도는 18 절에 지향이 나와 있다. 지혜는 눈이 밝아져 그분 안에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우리의 바람이다) =>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가 그리스도와 본질적인 결합을 이루되 교회는 그리스도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교회의 성장은 그리스도에 의존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현존으로 채워져 있으며, 교회를 통하여 그분은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신다.
-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일치(2장) => 2 장은 바오로 사도의 구원관이 명확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2 장 4 절-5 절 ; 2 장 10 절)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로 구원되었으며 하느님의 작품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통로이다.

- 그리스도안에 일치(2장 14절-22절) => 하느님께서서는 원수가 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시키시어 둘을 하나로 만드시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시어 둘 사이의 막힌 담이 되었던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규정을 폐지 시킴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고 하느님 나라의 시민이다.
- 이방인의 사도 바오로(3장) => 3장 23절-29절 봉독

❖ 후반부 :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4장-6장)

- 믿는 이들의 일치(4,1-16) => ‘하나’ 라는 낱말을 일곱 번이나 사용됨으로써 사도가 교회의 일치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4, 4-6) => 세례를 받아 서로 한 몸이 되었고 한 희망을 지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사람” 이 되었기에 그분은 “모두의 안에” 계신다.
- 새 마음, 새 생각으로 갈아입기(4,17-5,20) => 거짓말, 도둑질, 분노, 욕설 따위는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낡은 사람에 속하는 것들로서 우리의 기쁨을 깨뜨리고 평화를 해침으로써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해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이며, 또한 음행이나 추행이나 탐욕에 찬 말들을 입에도 올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 새로운 인간관계 맺기(5,21-6,9) => 가훈 목록이 나오는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성서본문 5,21-30의 내용을 읽자. (1) 남편과 아내 (2) 자녀와 부모의 관계 (3) 종과 주인의 관계
- 영적으로 무장하기(6,10-20) =>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으나 인간의 전 영역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을 말함으로써 아직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위험들을 깨우쳐 주며 그리스도교적 실존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명령이다.
- 편지 종결(6,21-24) => 편지종결은 개인적인 일에 대한 것과 마지막 축복으로 되어 있는데 콜로새서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디키고라는 인물이 소개된다. 바오로 사도의 동역자로서 활동하며 바오로는 그를 주님을 믿는 충실한 일꾼으로서, 소개하고 그를 보내는 목적은 사정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독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